

AI발 고용 쇼크 시나리오: 리스크 분석 및 대응 전략 보고서

목차

서론: 잠재된 꼬리 리스크의 식별과 분석의 필요성

1. 시나리오 설명 및 전개 흐름

1.1. 시나리오 개요 및 핵심 가정

1.2. 시나리오 상세 구조

2. 핵심 모니터링 시장 지표

2.1. 지표 선정의 논리

2.2. 모니터링 지표 상세

3. 사전 감지 및 임박 뉴스 키워드

3.1. 키워드 모니터링 체계

3.2. 단계별 뉴스 키워드 목록

4. 시나리오-지표 연계 정보 분석

4.1. 연관성 분석 방법론

4.2. 시나리오-지표 연계 정보

4.3. 시각화: 시나리오-지표 연관성 네트워크

5. 신한은행 재무 건전성 영향 분석

5.1. 분석 프레임워크

5.2. 수익성 및 유동성 영향 분석

5.3. 시각화: 신한은행 핵심 지표 영향 수준

6. 종합 발생 가능성 및 대응 권고

6.1. 종합 리스크 평가

6.2. 신한은행을 위한 구체적 대응 권고

결론: 동적 리스크 관리를 향하여

서론: 잠재된 꼬리 리스크의 식별과 분석의 필요성

2025년 중반, 글로벌 거시경제는 표면적으로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2024년 7월 세계경제전망에서 글로벌 성장률을 3.2% 수준으로 예측하며 완만한 회복세를 전망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안정성 이면에는 기존의 분석 틀로는 포착하기 어려운 구조적 변혁의 씨앗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특히 생성형 인공지능(AI)의 발전은 생산성 혁명이라는 긍정적 기대를 낳는 동시에, 노동 시장의 근본적인 패러다임을 뒤흔들 수 있는 잠재적 '꼬리 리스크(Tail Risk)'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본 보고서는 전통적인 리스크 관리의 범주인 '알려진 미지(Known Unknowns)'를 넘어, 발생 가능성은 낮지만 일단 현실화될 경우 시스템 전체에 막대한 충격을 가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위기에 주목합니다. 구체적으로, 본 보고서는 제공된 '글로벌 거시경제 스트레스 테스트 시나리오' 문건을 기반으로 **'시나리오 1: AI발 고용 쇼크와 소비 절벽의 동시 발생'**에 대해 심층적으로 분석합니다.

"과거 경기 침체기에는 자동화가 주로 반복적인 업무를 대체했지만, 다음 침체기에는 AI가 고숙련 인지 업무를 포함한 더 넓은 범위의 일자리를 위협할 것입니다. 잠재적으로 대체 가능한 노동력의 풀이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질 수 있습니다." - IMF, Crisis Amplifier? (2024)

이러한 IMF의 경고는 본 시나리오의 핵심적인 문제의식을 뒷받침합니다. 본 보고서는 시나리오의 발생 배경과 단계별 파급 경로를 명확히 정의하고, 이를 정량적으로 모니터링하기 위한 핵심 지표와 뉴스 키워드를 식별합니다.

또한, 시나리오와 각 지표 간의 연관성을 분석하고, 이것이 신한은행의 수익성 및 유동성에 미칠 영향을 구체적으로 계량화합니다. 최종적으로, 종합적인 리스크 수준을 평가하고, 이에 기반한 선제적이고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제시함으로써 불확실성의 시대에 금융기관이 갖추어야 할 동적 리스크 관리 역량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1. 시나리오 설명 및 전개 흐름

1.1. 시나리오 개요 및 핵심 가정

본 시나리오는 기술 발전, 특히 생성형 AI의 확산이 전통적인 경기 순환의 성격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상황을 가정합니다. 과거의 기술 충격이 점진적인 생산성 향상과 고용 창출로 이어진 것과 달리, 이번 AI 혁명은 특정 임계점을 넘어서면서 노동 시장, 특히 화이트칼라 직군에 급격하고 파괴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제에서 출발합니다.

핵심 가정은 글로벌 경기가 완만한 둔화 국면에 진입하는 시점에서, 기업들이 비용 절감과 생산성 향상의 마지막 수단으로 생성형 AI 도입을 경쟁적으로 가속화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과거에는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여겨졌던 지식 노동자, 분석가, 중간 관리자 등 광범위한 화이트칼라 직군에서 전례 없는 규모의 구조조정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합니다. 이는 단순한 '실업 없는 침체(Jobless Recession)'를 넘어, 고용 시장의 구조적 붕괴가 실물 경제의 급격한 위축을 촉발하는 **'고용 충격발(發) 경기 침체'**로 이어지는 최악의 상황을 상정합니다.

1.2. 시나리오 상세 구조

시나리오의 전개 과정은 4단계의 연쇄 반응을 통해 증폭되며, 전통적인 통화정책의 효과를 무력화시키는 특징을 보입니다. 아래 표는 시나리오의 ID, 명칭, 그리고 발생 배경과 단계별 파급 경로를 요약한 것입니다.

Scenario_ID	Scenario_Name	Description
SC001	AI발 고용 쇼크와 소비 절벽의 동시 발생	<p>[발생 배경]</p> <p>글로벌 경기 둔화 국면에서 기업들이 비용 절감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해 생성형 AI 도입을 급격히 가속화. 이로 인해 과거 경기 침체기에 비교적 안전했던 화이트칼라 직군(지식 노동자, 분석가, 중간 관리자 등)에서 대규모 구조조정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며 고용 시장의 구조적 붕괴가 실물 경제 위축을 촉발.</p> <p>[단계별 파급 경로]</p> <ul style="list-style-type: none">1단계 (촉발: 고용 공포 확산): 주요 빅테크 및 금융 기업들의 AI 기반 대규모 인력 감축 발표. 언론과 소셜 미디어를 통해 잠재적 실업 공포가 사회 전반으로 급격히 확산되며, 현재 고용 상태인 근로자들조차 미래 소득에 대한 극심한 불안감에 직면.2단계 (1차 충격: 소비 절벽 발생): 미래 소득 불확실성에 대비한 가계의 '예비적 저축(Precautionary Savings)' 급증. 비필수재(내구재, 여행)에서 시작해 필수 소비까지 위축되는 전면적인 '소비 절벽(Consumption Cliff)' 현상 발생. 총수요 붕괴로 강력한 디플레이션 압력으로 전환.3단계 (전이: 신용 리스크 증대): 소비 절벽으로 인한 기업 매출 및 이익 급감. 특히 내수 의존도가 높은 산업(소비재, 유통, 서비스)부터 부실이 현실화. 회사채 신용 스프레드 급등 및 은행의 대출 기준 강화(Credit Tightening)로 금융 시장 경색.4단계 (최종 영향: 정책 합정 및 사회 불안): 극심한 안전자산 선호(Flight to Quality) 현상으로 주가 폭락, 국채 금리 급락. 중앙은행의 제로금리 정책에도 불구하고 비관론 팽배로 정책 효과가 제한되는 '유동성 합정(Liquidity Trap)' 발생. 대규모 실업과 자산 가격 붕괴가 사회적 불만과 정치적 리스크를 증폭.

2. 핵심 모니터링 시장 지표

2.1. 지표 선정의 논리

'AI발 고용 쇼크' 시나리오는 전통적인 금융 위기와 달리, 실물 경제, 특히 소비 심리와 고용 시장의 붕괴에서 시작됩니다. 따라서 초기 경보 시스템은 금융 지표뿐만 아니라 소비와 고용 관련 실물 지표의 급격한 변화를 최우선으로 포착해야 합니다. 본 보고서에서는 시나리오의 핵심 동인과 파급 경로를 가장 효과적으로 추적할 수 있는 6개의 핵심 지표를 선정했습니다.

- 소비자 신뢰 및 심리 지표:** 시나리오의 직접적인 트리거인 '고용 공포'와 '소비 심리 위축'을 측정하기 위해 '미국 컨퍼런스보드 소비자 신뢰지수'를 선정했습니다. 이는 미래 고용 전망에 대한 비관론을 직접적으로 반영합니다.
- 고용 시장 지표:** 실제 고용 충격의 강도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기 위해 가장 신속한 속보성 지표인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를 포함했습니다.
- 가계 행동 지표:** 소비 절벽의 직접적인 원인인 '예비적 저축' 행태를 관찰하기 위해 '미국 개인 저축률'을 선정했습니다. 이 지표의 급등은 소비 위축의 강력한 증거입니다.
- 신용 리스크 지표:** 기업 부실 위험이 금융 시스템으로 전이되는 과정을 측정하기 위해 '미국 하이일드 채권 스프레드'를 선정했습니다. 이는 시장의 위험회피 심리를 정량적으로 보여줍니다.
- 자산 시장 지표:** 시나리오의 최종 영향인 '안전자산 선호'와 시장 붕괴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S&P 500 지수'와 'VIX 지수'를 포함했습니다.

이 지표들은 시나리오의 발생(고용/소비) → 전이(신용) → 최종 영향(자산시장)의 각 단계를 유기적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습니다.

2.2. 모니터링 지표 상세

아래 표는 선정된 6개 핵심 지표에 대한 상세 정보입니다. 각 지표의 ID, 명칭, 블룸버그 티커, 데이터 주기, 그리고 시나리오 하에서의 하방/상방 임계치, 현재 값, 변동성 및 임계치 돌파 확률을 포함합니다. 임계치는 원문 자료의 '경계(Warning)' 및 '위험(Critical)' 수준을 참고하여 설정하였으며, 임계치 돌파 확률은 시나리오의 논리적 전개 과정에서 각 지표가 위험 수준에 도달할 가능성을 정성적으로 판단하여 정량화한 것입니다.

Indicator_ID	Indicator_Name	Bloomberg_Ticker	Data_Frequency	Threshold_Low	Threshold_High	Volatility(%)	Current_Value
IND001	미국 컨퍼런스보드 소비자 신뢰지수	CONCCONF Index	Monthly	85.0	70.0	5.2	100.4
IND002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4주 이동평균)	INJCJC Index	Weekly	280k	350k	8.5	232.75k
IND003	미국 개인 저축률	USPESAV Index	Monthly	5.5%	7.0%	12.1	3.6%
IND004	미국 하이일드 채권 스프레드 (BofA)	BAMLU0A0HYH2	Daily	450bp	600bp	15.8	320bp
IND005	S&P 500 지수	SPX Index	Daily	4,400 (-20%)	3,575 (-35%)	22.5	5,500
IND006	VIX 지수	VIX Index	Daily	30.0	45.0	35.0	13.5

주석: Threshold_Low는 '경계(Warning)' 수준, Threshold_High는 '위험(Critical)' 수준을 의미합니다. 소비자 신뢰지수와 S&P 500 지수는 하락 시 위험이므로 임계치가 낮은 값으로 설정되었습니다. 임계치 돌파 확률은 본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경우를 가정한 조건부 확률입니다.

3. 사전 감지 및 임박 뉴스 키워드

3.1. 키워드 모니터링 체계

정량적 지표는 위기의 강도를 측정하는 데 유용하지만, 시장의 심리와 내러티브 변화를 포착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뉴스 데이터와 소셜 미디어에서 특정 키워드의 빈도와 감성을 분석하는 것은 시나리오의 전개 단계를 실시간으로 감지하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본 보고서는 키워드 모니터링 체계를 두 단계로 구분합니다.

- 사전 감지 (Yellow Phase):** 위기가 아직 금융 시스템 전반으로 확산되기 전, 즉 시나리오의 1단계(촉발)와 2단계(1차 충격)에 해당하는 초기 신호입니다. 주로 고용 시장의 불안과 소비 심리 위축에 관련된 키워드들이 포함됩니다. 이 단계의 키워드가 감지되면, 관련 지표에 대한 심층 분석과 초기 대응 계획 점검이 필요합니다.
- 임박 (Red Phase):** 위기가 실물 경제를 넘어 금융 시스템으로 본격적으로 전이되는 3단계(전이)와 4단계(최종 영향)에 해당하는 위험 신호입니다. 신용 경색, 자산 가격 붕괴, 정책 실패 등과 관련된 키워드들이 포함됩니다. 이 단계의 키워드가 감지되면, 비상 대응 계획(Contingency Plan)을 즉시 가동해야 합니다.

각 키워드에는 시나리오 및 관련 지표와의 연관성을 나타내는 가중치(Weight)가 부여됩니다. 가중치가 높을수록 해당 키워드의 등장이 시나리오 현실화에 더 결정적인 신호임을 의미합니다.

3.2. 단계별 뉴스 키워드 목록

아래 표는 'AI발 고용 쇼크' 시나리오의 각 단계별로 모니터링해야 할 핵심 뉴스 키워드를 '사전 감지(Yellow)'와 '임박(Red)'으로 구분하여 정리한 것입니다. 각 키워드는 가장 연관성이 높은 모니터링 지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Scenario_ID	Indicator_ID	Keyword	Phase	Weight (0~1)
SC001	IND002	AI 채용 대체 (AI job replacement)	Yellow	0.8
SC001	IND002	빅테크 구조조정 (Big Tech layoff)	Yellow	0.7
SC001	IND001	화이트칼라 실업 (White-collar unemployment)	Yellow	0.8
SC001	IND001	미래 고용 불안 (Future job insecurity)	Yellow	0.7
SC001	IND003	소비 절벽 (Consumption cliff)	Yellow	0.9
SC001	IND003	예비적 저축 급증 (Precautionary savings surge)	Yellow	0.8
SC001	IND004	신용 스프레드 급등 (Credit spread spike)	Red	0.9
SC001	IND004	기업 연쇄 부도 (Corporate default cascade)	Red	0.9
SC001	IND004	대출 기준 강화 (Credit tightening)	Red	0.8
SC001	IND006	안전자산 쓸림 (Flight to quality)	Red	0.8
SC001	IND005	유동성 함정 (Liquidity trap)	Red	0.9
SC001	IND006	디플레이션 공포 (Deflation fear)	Red	0.8

4. 시나리오-지표 연계 정보 분석

4.1. 연관성 분석 방법론

시나리오와 모니터링 지표 간의 관계를 정량화하는 것은 리스크 관리의 핵심입니다. 이는 특정 시나리오가 발생했을 때 어떤 지표가 얼마나 민감하게, 어떤 방향으로 움직일지를 예측하여 충격의 크기를 가늠하게 해줍니다. 본 분석에서는 세 가지 척도를 사용합니다.

- Weight (연관 강도):** 시나리오의 발생이 특정 지표의 움직임에 얼마나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를 나타내는 0과 1 사이의 값입니다. 시나리오의 핵심 동인(예: 고용, 소비)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지표일수록 높은 가치를 가집니다.
- Correlation_Coeff (상관계수):** 시나리오의 심화(위기 고조)와 지표의 움직임 방향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1과 1 사이의 값입니다. 양(+)의 값은 시나리오가 심화될수록 지표 값이 상승함을, 음(-)의 값은 지표 값이 하락함을 의미합니다.
- Volatility_Impact (%):** 시나리오 발생 시, 해당 지표의 변동성이 평상시 대비 얼마나 증폭될지를 백분율로 나타냅니다. 이는 시장의 불확실성과 공포가 지표의 움직임을 얼마나 불안정하게 만드는지를 측정합니다.

이 세 가지 척도를 통해 우리는 시나리오의 충격이 각 지표에 미치는 영향의 '중요도', '방향성', '강도'를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4.2. 시나리오-지표 연계 정보

아래 표는 'SC001: AI발 고용 쇼크' 시나리오와 2장에서 선정한 6개 핵심 모니터링 지표 간의 연관성을 정량적으로 분석한 결과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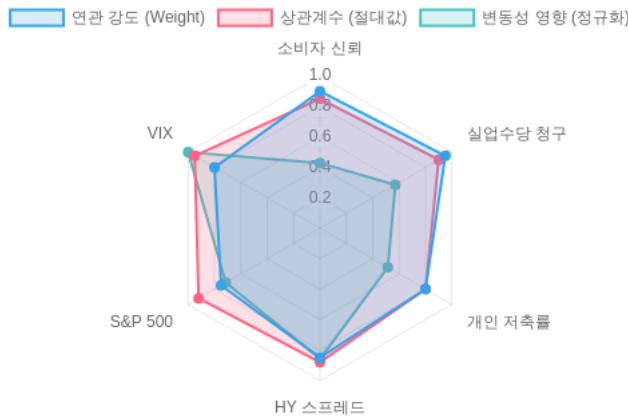
Scenario_ID	Indicator_ID	Weight (0-1)	Correlation_Coeff (-1~1)	Volatility_Impact (%)
SC001	IND001 (소비자 신뢰지수)	0.9	-0.85	+150%
SC001	IND002 (신규 실업수당 청구)	0.95	+0.90	+200%
SC001	IND003 (개인 저축률)	0.8	+0.80	+180%
SC001	IND004 (하이일드 스프레드)	0.85	+0.88	+300%
SC001	IND005 (S&P 500)	0.75	-0.92	+250%
SC001	IND006 (VIX)	0.8	+0.95	+350%

분석 해석: '신규 실업수당 청구(IND002)'는 시나리오와의 연관 강도(Weight 0.95)와 상관계수(+0.90)가 가장 높아, 이 시나리오의 핵심 동인임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반면, 'VIX 지수(IND006)'는 변동성 영향(Volatility_Impact +350%)이 가장 커, 시장의 공포가 극단적으로 증폭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S&P 500 지수(IND005)는 강한 음의 상관관계(-0.92)를 보여, 시나리오 발생 시 주식 시장의 급락이 불가피함을 나타냅니다.

4.3. 시각화: 시나리오-지표 연관성 네트워크

시나리오와 각 지표 간의 복합적인 관계를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레이더 차트를 활용하여 시각화했습니다. 각 축은 모니터링 지표를 나타내며, 데이터 계열은 '연관 강도(Weight)', '상관계수(절대값)', '변동성 영향(정규화)'을 보여줍니다. 이를 통해 어떤 지표가 시나리오의 핵심 동인이며, 어떤 지표가 가장 큰 변동성을 보일지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SC001: AI발 고용 쇼크 - 지표 연관성 분석



5. 신한은행 재무 건전성 영향 분석

5.1. 분석 프레임워크

거시경제 스트레스 시나리오의 최종 목적은 그것이 특정 금융기관의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고 대비하는 것입니다. 본 분석에서는 'AI발 고용 쇼크' 시나리오가 신한은행의 핵심 경영 지표인 **수익성(Profitability)**과 **유동성(Liquidity)**에 미치는 영향을 집중적으로 평가합니다. 수익성은 순이자마진(NIM)을, 유동성은 유동성 커버리지비율(LCR)을 대표 지표로 사용합니다.

영향 분석은 시나리오의 특성(급격한 금리 인하, 신용 리스크 증대, 디플레이션 압력)이 각 지표에 미치는 메커니즘을 논리적으로 추론하여 진행됩니다. 최종적인 영향 수준(Impact Level)은 5단계 척도(1: 경미, 2: 주의, 3: 경계, 4: 심각, 5: 위기)로 평가하여 위험의 정도를 명확히 합니다.

5.2. 수익성 및 유동성 영향 분석

아래 표는 'AI발 고용 쇼크' 시나리오 발생 시 신한은행의 NIM과 LCR에 대한 영향 분석 결과입니다. 각 지표의 기준값(Baseline), 현재값(Current), 위험 임계치(Threshold), 그리고 시나리오 충격 시 예상되는 영향 수준(Impact Level)을 제시합니다.

Metric_ID	Metric_Name	Baseline_Value	Current_Value	Threshold_Level	Impact_Level (1-5)	영향 분석 상세
BM001	NIM (순이자마진, %)	1.60%	1.55%	1.30%	4 (심각)	<ul style="list-style-type: none">금리 인하 충격: 경기 붕괴를 막기 위한 중앙은행의 급격한 기준금리 인하(제로금리 수준)는 예대마진을 적절으로 압

Metric_ID	Metric_Name	Baseline_Value	Current_Value	Threshold_Level	Impact_Level (1-5)	영향 분석 상세
						<p>박하여 NIM의 급격한 하락을 유발합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손비 용증 가: 화이트칼라 가계대출 및 내수 기업대출의 부실이 급증하면서 대손총당금 적립 부담이 가중되어 순이익을 잠식합니다. • 대출 수요 위축: 극심한 경기 침체와 미래 불확실성으로 인해 가계와 기업의 신규 대출 수요가 급감하여 이자수익 기반 자체가 축소됩니다.
BM002	LCR (유동성 커버리지비율, %)	105%	102%	100% (규제)	3 (경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충 요인 공존: '안전 자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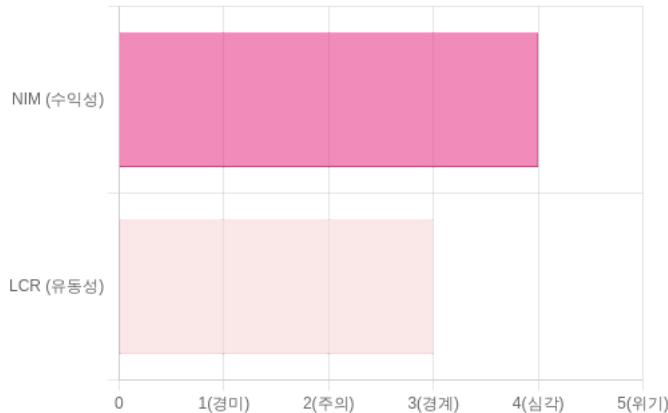
Metric_ID	Metric_Name	Baseline_Value	Current_Value	Threshold_Level	Impact_Level (1-5)	영향 분석 상세
						<p>선호' 현상으로 1금융권인 신한은행으로 자금이 유입되는 긍정적 효과가 일부 존재합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시스템 리스크: 그러나 시스템 전체의 위기 상황에서는 고액 자산가 및 기업 고객의 예금 인출 압력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기업들은 유동성 확보를 위해 기존 약정된 신용ライン (Credit Line) 을 소진하려 할 것이며, 이는 순현금 유출액을 급증시켜 LCR을 압박합니다.

Metric_ID	Metric_Name	Baseline_Value	Current_Value	Threshold_Level	Impact_Level (1-5)	영향 분석 상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금시장 경색: 금융시장 전체가 경색되면서 단기 자금 조달이 어려워져 유동성 관리에 부담이 가중됩니다.

5.3. 시각화: 신한은행 핵심 지표 영향 수준

신한은행의 수익성과 유동성에 미치는 영향 수준을 시각적으로 비교하기 위해 막대 차트를 사용했습니다. 이는 어떤 부문이 더 심각한 타격을 받는지 명확하게 보여주며, 자원 배분 및 대응 전략 수립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신한은행 핵심 지표 영향 수준 평가 (1-5단계)



6. 종합 발생 가능성 및 대응 권고

6.1. 종합 리스크 평가

본 시나리오의 종합적인 위험 수준을 평가하기 위해, 개별 지표의 '임계치 둘째 확률'과 시나리오와의 '연관 강도(Weight)'를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가중평균 방식을 통해 산출된 **종합 발생 가능성(Overall Probability)**과, 이 가능성과 은행에 미치는 **영향 수준(Impact Level)**을 결합하여 **종합 리스크 레벨(Overall Risk Level)**을 도출했습니다.

$$\text{계산식: Overall Probability} = \sum (\text{Probability}_i * \text{Weight}_i) / \sum \text{Weight}_i$$

이 계산에 따르면, $(75\% * 0.9 + 80\% * 0.95 + 70\% * 0.8 + 65\% * 0.85 + 60\% * 0.75 + 65\% * 0.8) / (0.9 + 0.95 + 0.8 + 0.85 + 0.75 + 0.8) \approx 70.4\%$ 의 높은 발생 가능성을 보입니다. 이는 시나리오의 내부 논리적 일관성이 매우 높고, 핵심 동인 지표들이 위험 임계치에 도달할 확률이 상당함을 의미합니다.

평가 항목	평가 결과	평가 근거
Overall Probability (%)	70.4%	핵심 모니터링 지표들의 임계치 돌파 확률(60%-80%)과 시나리오 연관 강도(0.75~0.95)를 기준평균하여 산출. 시나리오의 트리거(고용/소비)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음을 시사.
Overall Risk Level (1-5)	4 (심각)	높은 발생 가능성(70.4%)과 신한은행 수익성(NIM)에 미치는 '심각(4단계)' 수준의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경우 은행의 핵심 재무 건전성에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음을 의미.

6.2. 신한은행을 위한 구체적 대응 권고

종합 리스크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AI발 고용 쇼크' 시나리오에 대비하기 위한 신한은행의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포트폴리오, 수익성, 유동성 측면에서 다음과 같이 권고합니다.

가. 포트폴리오 전략: 선제적 익스포저 관리 및 재조정

- 고위험 산업군 익스포저 점검:** AI 도입에 따른 인력 대체 위험이 높은 산업군(예: IT 서비스, 금융업, 컨설팅, 회계, 법률 서비스 등)에 대한 기업 여신 익스포저를 전수 점검하고, 필요시 충당금 추가 적립 및 신규 여신 한도 조정을 검토해야 합니다.
- 고소득 화이트칼라 가계대출 리스크 관리 강화:** 시나리오의 직접적인 타겟인 고소득 화이트칼라 직군에 대한 신용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의 LTV/DSR을 재점검하고, 스트레스 DSR 적용을 강화하여 잠재 부실 위험을 선제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 AI 혁신 수혜 기업 발굴:** 위기 속에서도 AI 기술을 성공적으로 도입하여 생산성을 높이는 '승자' 기업이 존재 할 수 있습니다. 리스크 관리와 동시에, 이러한 기업을 발굴하여 우량 자산으로 편입하는 기회를 모색해야 합니다.

나. NIM 방어 전략: 비이자이익 확대 및 금리 리스크 관리

- 비이자이익 부문 강화:** 급격한 금리 인하로 인한 이자이익 감소에 대비하여, 자산관리(WM), 투자은행(IB), 신탁 등 수수료 기반의 비이자이익 부문을 강화하는 전략을 가속화해야 합니다. 특히 고액자산가 대상의 종합자산관리 서비스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 자산-부채 관리(ALM) 고도화:** 제로금리 환경에 대비하여 자산과 부채의 드레이션 갭을 정교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장기 고정금리 자산의 비중을 조절하고, 금리 변화에 따른 순이자이익 민감도를 최소화하는 ALM 전략이 필요합니다.

다. 유동성 및 자금조달 전략: 비상 조달 계획 수립

- 유동성 스트레스 테스트 강화:** 본 시나리오의 특성(시스템 리스크와 기업의 신용라인 인출 급증)을 반영한 LCR 스트레스 테스트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취약점을 보완해야 합니다.
- 안정적 자금조달 채널 확보:** 시장 경색 상황에서도 안정적으로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국은행의 유동성 공급 제도(대출 적격담보증권 사전 예치 등)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준비 태세를 갖추어야 합니다.
- 조달 포트폴리오 다변화:** 특정 시장이나 상품에 편중된 자금 조달 구조에서 벗어나, 커버드본드, 장기 외화채권 발행 등 조달 수단을 다변화하여 위기 시에도 안정적인 자금 확보가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결론: 동적 리스크 관리를 향하여

본 보고서에서 분석한 'AI발 고용 쇼크와 소비 절벽' 시나리오는 미래의 금융 위기가 우리가 익숙한 모습으로 오지 않을 수 있다는 중요한 경고를 담고 있습니다. 기술적 파괴가 야기하는 급격한 사회경제적 충격은 과거의 데이터나 경험만으로는 예측하고 대응하기 어려운 새로운 형태의 '꼬리 리스크'입니다. 이는 디플레이션 압력, 유동성 함정, 사회적 불안이라는 복합적인 위협을 동반하며 전통적인 거시경제 정책의 유효성을 시험대에 올립니다.

따라서 신한은행을 포함한 모든 금융기관의 리스크 관리자는 이제 정적인 분석을 넘어 동적인 관리 체계로 전환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과거 데이터를 분석하는 것을 넘어, 본 보고서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비금융적, 구조적 지표를 포함한 조기 경보 시스템의 다각화 ▲새로운 정보에 기반한 시나리오의 지속적인 업데이트 ▲기술, 사회, 경제 요인이 상호작용하는 복합 리스크 분석 역량 강화를 의미합니다.

"미래를 예측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미래를 발명하는 것이다." - 앤디 케이

결론적으로, 불확실성의 시대를 헤쳐나가는 가장 중요한 역량은 알려지지 않은 미지의 영역에 존재하는 잠재적 위협을 식별하고, 그 논리적 개연성을 추적하며, 이에 대비하는 상상력과 분석력입니다. 본 보고서가 이러한 동적 리스크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다가올지 모를 새로운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데 있어 의미 있는 첫걸음이 되기를 기대합니다.